

# 예배 WORSHIP

June 30, 2019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 사역과 행사 안내

### 하나님 앞으로

-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 예배기도 / 김훈태 집사
- 주님 가르치신 기도

### 말씀과 결단

- 성경말씀  
여호수아 1:10-18
- 건강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운 현신과 수고**
-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 결단의 찬송  
찬송 331장 /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통일찬송기 375상)

### 현신과 나눔

- 봉헌 / 흥정임 집사, 구민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 삶과 세상으로

- \*가서 제자 삼으라
- \*쓰기 / 기사제 모사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시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낙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 금요 찬양예배

8:00 pm

기도 : 오정은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출애굽기 19:10-19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 복상에세이

"코에 숨이 있는"(사 2:22) 우리 인생은 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쉼이나 휴식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게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하던 활동, 늘 하던 일과는 다른 활동, 다른 일을 할 경우 대개 휴식을 맛보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거나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삶에 커다란 휴식과 안식을 준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에게는 일이 될 수 있는 것도 성도에게는 커다란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일 끊지않게 쉼 자체도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일에 열중할 때 우리는 나 자신도, 타인도, 우리 주변도 잊어버리고 일속에 빠져 일에만 몰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쉬어 보십시오. 천천히 산책을 하게 되면 길가의 꽃과 나무가 눈에 들어옵니다. 친구를 만나 정겨운 대화를 나누면 나는 타인과 함께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과 이웃을 생각하고 자연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쉬어야 제대로 쉬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쉬라고 가르칩니다. 옛세 동안은 일할 수 있으나 이례째는 쉬라고 합니다.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삶을 완전히 맡긴 사람만이 사실은 제대로 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쉼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쉬되 그냥 쉬지만 말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서 쉬는 것이 제대로 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쉬지 못하는 사람이나 쉼이 필요한 이웃도 생각하며 그들도 쉬게 하는 것, 그들과 함께 쉬는 것도 제대로 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휴식의 계절을 맞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쉼시다. 모든 것 내려놓고 쉡시다. 예배드리면서 쉬고, 남들과 함께 더불어 쉽시다."

- 강영안 / Calvin Theological Seminary 교수

### 한 주간의 기도

"섬김을 위한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의 은사에 맞게 기쁘게 사역하며 나아가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위해 회성하고 헌신할 믿음의 분량을 주십시오. 가진 것을 나누며 함께 나아갈 때 나의 사역이 억지로 주어진 징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의 양식과 섬으로 다가오게 해 주십시오."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 MISSION PASTOR 정홍렬 목사
- CHILDREN'S MINISTER 고순재 전도사  
장영희 전도사
-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장면 6:19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은 그 마음에 사랑하시는 것이 유효 가나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허위한 자의 피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밤과 거짓을 말하는 만류된 증인과  
믿 황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나라.”

## 삶과 신앙

### 자녀를 위한 기도에 관해서 / 요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

질문: 목사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성적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녀들의 구원과 선양성장을 위한 기도인데도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이 완벽히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가정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즉시 응답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증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교회에 더 잘 다니고 선양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열매를 맺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드러나지 않게 벌써부터 역사하고 계십니다. 질병의 치유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달려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회심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 편에서도 요구 되어지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력을 사용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인간이 싫다고 자꾸 거역할 수록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주 강한 욕구와 정욕, 어둠의 세력에 속박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움직이시기 위해 이런 속박이 하나 하나 깨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반감이 조금씩 커지면서 불신앙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반감이 사라지고 불신앙과 불경스러운 모든 것에서 영혼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열매를 인간이 알아챌 수 있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어머니들은 기도를 올바로만 한다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는 데만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자녀에게 닥치는 고난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려기에 우리는 누군가 사랑으로 진심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한 어느 누구도 버림받은 자로 여겨선 안 됩니다.

하지만 기도의 열매가 너무 없는 경우 기도하는 사람 편에 옳지 못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예배에 잘 참석하고 겉으로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그걸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고 하나님과 참 교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으면서 자녀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기도하기 위해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기도가 완전히 응답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고 상황이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는 매일 많은 말로 반복하는 것보다 잠자리 마음에 품고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자신을 살피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대상에게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경솔하지 말고 어리석은 언행을 삼가고, 가혹하거나 엄격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절함과 관용 없이 가르치려는 태도는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가 가족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보다 더 빨리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실 때가 곧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직접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 때문에 상심하는 모든 영혼을 위로하고 인내와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영광스러운 결말로 이끄실 것입니다.

##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제의식탁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역 / 행사

7월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삶을 삽니다.

1. 오늘은 선교주일이며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2.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간구합시다. 특히, 남은 한 해가 동안  
새벽집회와 기도운동에 참여합시다!
3. 금주는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미국과 한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4. 주일성경공부 여름학기가 7월 첫 주일(7/7)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의 7 가지 기적들: 장영현 전도사 / 성경인물: 고순제 전도사  
그림으로 표현하는 성경목상: 정홍렬 목사
5. 방학: 자녀들이 시간을 지혜롭고 활용하며, 방학을 보람 되게  
보내도록 관심과 격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 유초등부 교육전도사/교사 청빙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7. 교우와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시다.

교우 동정 : 최선윤/윤정 (한국 방문 중)

♥생일 축하♥ 김영은(6/8) 오승국(6/15) 이정연(6/24) 홍은출(6/7)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축복된 교회, 성장하는 성길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 |                       |   |
|-----------------------|---|
| 기<br>도<br>제<br>목      |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
|                       |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
| 예<br>배<br>섬<br>김<br>이 |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
|                       |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
| 주일예배기도                |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
|                       |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

주일예배기도	6/23	6/30	7/7	7/14
	박진성집사	김훈태집사	구은강집사	정홍렬목사
금요예배기도	6/28	7/5	7/12	7/19
	구은강집사	오정은집사	박진성집사	최내권집사
주일헌금위원	6/23	6/30	7/7	7/14
	구민집사/홍정임집사		유덕하집사/구은강집사	
주일안내위원	6월		7월	
	김훈태집사		최내권집사	

## 말씀노트

### 말 쓰 노 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 마태복음 6:25-34

현장 학습방법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이를 위해 첫째, 가진 것에 만족하는 믿음의 눈. 둘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선순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풍요와 아름다움을 상속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다. 천지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벽하게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보호자와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으며, 주권과 통치를 깨달으며, 우리의 필요를 온전히 맡겨야 한다. 천국의 풍요를 더 풍족히 누리며, 참된 만족을 누리도록 해야겠다.

### 건강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운 현신과 수고 / 여호수아 1:10-18

자신의 필요를 우선하는 개인주의보다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연대의식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기억하며,

40년간 광야에서 공고동락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함께 체험하며,

이스라엘은 진짜 하나가 되고, 자체의 일이 자신의 일이 되고, 참 공동체를 만들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서로 세워주며, 위로하며, 아름답고 든든한 교회공동체를 세웁시다.

## 말씀요약

### 건강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운 현신과 수고 / 여호수아 1:10-18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도 자신들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공동체 의식은 이스라엘 전체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들 지파는 모세의 생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굳이 요단을 건너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다른 지파처럼 기나긴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들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 싸우기를 거부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큰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이는 군사력에 있어서나 사기에 있어서나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전쟁을 준비하며, 이 문제를 단호히 분명하게 처리합니다. 이들이 해야 할 바를 분명히 말합니다.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도 무장을 하고 함께 요단을 건너가 정복 전쟁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단지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이들 지파에 속한 사람은 모두 순종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요단을 건너가 전쟁에 앞장 서 임합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 의식 때문입니다. 이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철저하게 공동체 생활을 했고 연대책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든 일을 함께 겪으며 차츰차츰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이 때, 이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랬기에 자신들은 이미 땅을 받았지만, 땅을 받지 못한 형제들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건강한 공동체 의식은 40년 동안 동고동락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함께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일은 곧 자신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 하기는커녕, 앞장서서 나섰던 것입니다.

이 세 지파가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형제들을 위해 앞장 서서 요단을 건너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형제들을 위해 앞서 서야 합니다. 공동체의 자체인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들을 위한 모든 실질적인 도움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넘어진 지체를 일으켜 주고, 위로가 필요한 지체를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더욱 아름답고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http://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기념, 회복, 나눔

June 30, 2019

##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 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2019년 6월 30일

5-26호

재점검의 달

선교 주일

상반기 결산 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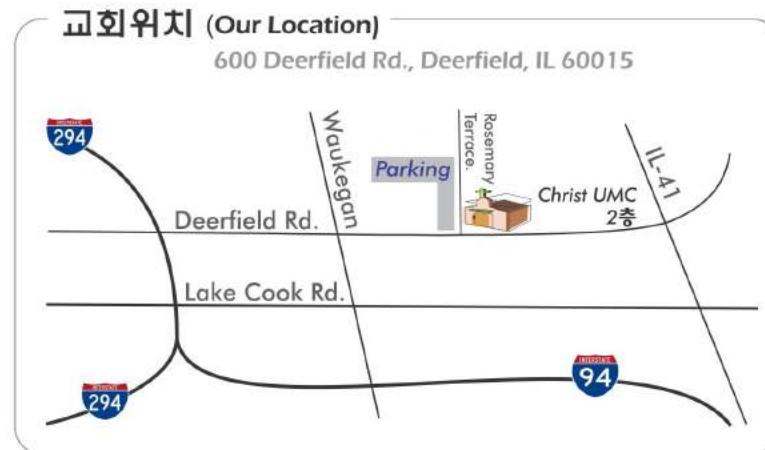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뿐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www.churchofservant.com](http://www.churchofservant.com)